Monday, Feb. 3, 2020 (2020-5 호)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칼럼)-中 신종 바이러스, 세계 경제에 과거보다 더 큰 위협
  - ◇ (초점)-시장이 보는 바이러스 장세 핵심 시나리오..금리 인하 가능성은?
  - ◇ (초점)-바이러스 공포에 원화 강세 기대 균열..역외 vs 네고・당국 경계 힘겨루기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후베이성에서 온 남성이 검문소로 걸어가고 있다. (로이터/토머스 피터 기자)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1월31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19(%)
달러 대비	1,191.8	-2.7%	-3.0%	-3.5%
100엔 대비	1,102.3	-4.4%	-3.6%	-4.4%
유로 대비	1,325.6	-2.9%	-2.4%	-1.3%
위안 대비	172.26	-1.8%	-3.8%	-2.4%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19(%)
코스피	2,119.01	-5.8%	-3.6%	7.7%
코스닥	642.48	-6.7%	-4.1%	-0.9%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9(bp)
국고채 3Y	1.303%	-13.0bp	-5.7bp	-45.7bp
국고채 5Y	1.387%	-16.6bp	-9.3bp	-40.4bp
국고채10Y	1.558%	-18.3bp	-12.5bp	-26.5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19(%)
유가(WTI)	51.56	-11.9%	-15.6%	34.5%
금(현물)	1,589.81	2.2%	4.8%	18.3%
TR상품지수	2,400.41	-4.7%	-3.4%	4.8%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19(%)
유로	1.1093	0.0%	-1.0%	-2.3%
엔	108.38	1.6%	0.2%	0.9%
위안	6.9086	-0.4%	0.8%	-1.3%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19(%)
다우존스	28,256.03	-3.7%	-1.0%	22.3%
나스닥	9,150.94	-2.5%	2.0%	35.2%
S&P500	3,225.52	-3.1%	-0.2%	28.9%
MSCI APxJP	532.15	-7.1%	-3.7%	15.8%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9(bp)
미국채 2Y	1.319%	-24.6bp	-24.2bp	-93.7bp
미국채 10Y	1.505%	-32.0bp	-40.5bp	-78.1bp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19(bp)
한국 5Y	26.3bp	6.3bp	5.2bp	-17.0bp
일본 5Y	16.2bp	-1.9bp	-1.6bp	-4.0bp
중국 5Y	40.1bp	11.2bp	9.5bp	-35.8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 중국 금융시장은 휴장 상태임

국내 주요 주간 일정

<2 월 3 일(월)>
- 한은, 우리나라 외환시장 오퍼레이션의 행태 및 환율변동성 완화 효과 (BOK 경제연구)(06:00)
- 기재부, 신종코로나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09:30)

<4 일(화)>
- 통계청, 1 월 소비자물가동향(08:00)
- KDI 북한경제리뷰(12:00)
- 한은, 2020 년 1 차(1.17 일 개최)금통위 의사록 공개(16:00)

<5 일(수)>
- 한은, 1 월말 외환보유액(06:00)
- 기재부, 신종 CV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10:00)
- 한은, 주요국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대응 현황(12:00)

<6 일(목)>
- 한은, 2019 년 12 월 국제수지(잠정)(08:00)
- 기재부, 재정집행 제고를 위한 주요부처 차관 조찬간담회

<7 일(금)>
- 특이일정 없음

해외 주요 주간 일정

<2 월 3 일(월)>
- 일본, 1 월 지분은행 마르키트 제조업 PMI(9:30)
- 중국, 12 월 산업이익(10:30)
- 중국, 1 월 차이신 제조업 PMI 확정치(10:45)
- 유로존, 1 월 마르키트 제조업 PMI 확정치 (18:00)
- 미국, 1 월 공급관리자협회(ISM) 제조업 PMI(23:00)
- 미국, 1 월 마르키트 제조업 PMI 확정치(23:45)
- 미국, 12 월 건설지출 (자정)

<4 일(화)>
- 호주 중앙은행(RBA) 통화정책회의(12:30)
- 유로존, 12 월 생산자물가(19:00)
- 미국, 12 월 공장주문(자정)

<5 일(수)>
- 일본, 1 월 서비스업 PMI(9:30)
- 중국, 1 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10:45)
- 유로존, 1 월 마르키트 서비스업 PMI 확정치 (18:00)
- 유로존, 12 월 소매판매(19:00)
- 미국, 1 월 ADP 전국고용동향(22:15)
- 미국, 12 월 무역수지(22:30)
- 미국, 1 월 마르키트 서비스업 PMI 확정치 (23:45)

<6 일(목)>
-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22:30)
- 미국, 4 분기 노동비용 잠정치(22:30)

<7 일(금)>
- 일본, 12 월 가계지출(8:30)
- 미국, 1 월 비농업부문 고용지표(22:30)
- 미국, 1 월 실업률(22:30)
- 중국, 1 월 수출입 및 무역수지(시간 미정)
- 12 월 도매재고 수정치(자정)
- 미국, 12 월 소비자신용(8 일 5:00)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외환시장 전망>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국내외 금융시장을 장악하면서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상승 변동성을 더 키울 전망이다.
- 예상 환율 범위는 1175-1210 원이다.
- 신종 바이러스로 감염 확진자와 사망자 수 추이에 따라 환율 오름폭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춘절 연휴가 끝난 이후 중국 금융시장 움직임이 우선 변수로 꼽힌다.
- 또한 신종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대내외 수요 위축 및 실물경제 둔화 등이 예상되면서 이래저래 국내외 금융시장 내 위험자산과 통화들은 당분간 살얼음판을 걷을 것으로 예상된다.
- 그간 조정다운 조정을 겪지 않은 미국 증시가 이번 일을 계기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또한 주된 변수다.
-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 발표되는 주요국 제조업 지수와 미국 고용지표 및 중국 수출입지표 등에 시장참가자들의 이목이 쏠릴 예정이다.
- 달러/원 환율은 국제 금융시장 흐름을 살피며 상승압력을 타진할 전망이다. 특히 중국 증시와 위안화 행보를 엿보며 장중 흐름이 결정될 전망이다.
- 국제 금융시장이 바이러스 우려에 변동성을 키운다면 달러/원의 1200 원대 진입 문턱은 한층 낮아질 수 있다.
- 한편 이번 주 주요 이벤트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4 일 국정연설, 미국 민주당의 아이오와 경선을 들 수 있다. 한편 다수 연준 인사의 발언도 있을 예정이다.

<채권시장 전망>

- 이번 주 채권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흐름과 맞물리며 변동성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지난주 국채선물시장에서 대규모 매수세를 이어간 외국인의 행보가 관건이다.
- 최초 바이러스 발병 확인 후 시장은 몇 가지 트리거 요인에 따라 반응폭을 키워가고 있다. 현재까지 치사율로 살펴보면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금융시장이 패닉 장세로 치달을 지 여부는 미지수다. 다만 시장 심리를 뒤흔들 수 있는 트리거 포인트가 하나씩 '클리어'되고 있어 당분간 위험 시나리오를 감안한 보수적인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춘절 연휴로 휴장했던 중국 증시가 이번 주 개장하는 만큼 시장 변동성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 주중 국고채 3 년물과 30 년물 입찰이 연달아 예정돼 있는 만큼 시장이 한 방향으로 달리기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당분간 커브 스티프닝 압력이 조금 강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 한국은행은 4 일 소비자물가 지표를 발표한다. 지난 2018 년 12 월 이후 13 개월 만에 물가가 1%대를 회복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미국은 오는 7 일(현지시간) 비농업부문 고용지표를 발표한다.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칼럼)-中 신종 바이러스, 세계 경제에 과거보다 더 큰 위협

(※ 이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뭄바이 (로이터브레이킹뷰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중국의 부상을 날카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고 있다. 지난 2003 년 중국에서 발생해 약 800 명이 사망한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이후 경제 성장은 빠르게 반등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더 강력한 예방 조치도 전염력이 더 강한 것으로 추정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상쇄되고 있다. 게다가 이미 부실해진 중국 경제는 사스 때보다 글로벌 성장에서 훨씬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하다.

27 일 일본에서 유럽, 미국에 이르기까지 주식시장은 급락했고 유가는 3% 가까이 빠졌다. 중국에 가까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마 더 클 것인데, 29 일 홍콩 주식시장이 음력 설 연휴를 마치고 개장해야 그 여파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본토의 생산 활동은 약 6000 만명이 살고 있는 후베이성 대부분 지역이 이동 금지 지역으로 묶이면서 큰 차질을 빚고 있다. 당국은 춘절 연휴 기간을 2 월 2 일까지로 연장했다.

신종 바이러스가 치사율은 더 낮은 것으로 보이지만, 과거 전염병 유행 때보다 중국에 경제적으로는 더 큰 위협이다. 중국의 GDP 는 사스 발병 당시 두 자릿수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였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이제 성장률은 2019 년 6.1%에서 2021 년 5.8%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부실채권으로 고전하고 있는 은행들은 바이러스 유행으로 어려워진 기업들에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부양책으로 선호되는 인프라 지출은 중국이 부강해지면서 영향력이 줄었다. 중국은 점차 경제 부양에 소비자들에게 의존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소비를 망설일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경제 규모는 중국의 문제가 다른 곳에서도 더욱 극심하게 체감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중국은 2003 년 글로벌 GDP 의 4%만을 차지했었고, 글로벌 성장에서도 비슷한 정도로 기여했지만, 올해는 글로벌 생산의 약 17%를, 글로벌 성장의 29%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IMF 가 올해 글로벌 성장률을 3.3%로 하향 조정한 것의 가장 큰 이유는 인도 경제의 부진이었다. 그러나 미국과 호주 등지까지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하고, 일부 국가들이 방문객들을 돌려보내거나 격리시키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신종 바이러스 발병은 또 하나의 위협요인이 되었다.

(초점)-시장이 보는 바이러스 장세 핵심 시나리오.. 금리 인하 가능성은?

서울 (로이터) 임승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주식, 채권, 외환, 파생상품 시장이 모두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지난해 말 이후 이어졌던 '리스크 온' 포지션이 되돌려지면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낙관적 경제지표와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전망의 불확실성이 혼재해 있기 때문이다. 당분간 불확실성의 확대가 불가피한 만큼 현시점에선 '리스크 오프' 포지션 구축이 불가피하다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다. 연초 구축했던 '리스크 온' 포지션 규모에 따라 되돌림의 정도가 시장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향후 바이러스 장세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을까?

다수의 시장 참가자는 결국 '기준금리를 인하할 정도로 경제심리와 지표를 악화시킬 트리거 요인이 작동하느냐'에 향후 자산가격의 움직임이 결정될 것으로 본다.

▲ 바이러스 장세, 향후 세 가지 변수 트리거 여부 주시

신종 바이러스 문제가 불거진 이후 시장은 연일 롤러코스터를 탔다. 21 일에는 중국 국가보건위원회의 저명한 과학자인 종난산이 "광둥성에 보고된 2 건의 감염 사례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전염에 의한 것이며 의료진도 감염됐다"고 밝혔다는 소식이 트리거가 돼 외환, 주식, 채권시장 모두 크게 흔들렸다.

하지만 하루 뒤인 22 일 시장은 마치 상황이 종료된 것 같은 반응을 보였다. 2003 년 사스 사태 당시 뼈아픈 정책 실패를 경험했던 중국 정부가 이번엔 예상보다 빠르게 정보를 공개하며 국제사회와의 협조를 강화한 게 시장에 먹히는 듯했다.

하지만 24 일(현지시간) 미국 내 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인되면서 미국 주식, 채권시장이 크게 흔들린 게 다시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었다. 이번 주부터는 중국 내 바이러스 확진자 ,사망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상황이다.

최초 바이러스 발병 확인 후 시장은 몇 가지 트리거 요인에 따라 반응폭을 키워가는 양상이다.

현시점에선 바이러스 확진자, 사망자 증가 속도가 가장 큰 이슈다. 일부에선 향후 7~10 일 내 바이러스 확산 흐름이 정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긴 하지만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두 번째 변수는 중국 외 지역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다. 현재 중국 내 의료 및 방역체계의 부실성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만약 중국 외 지역에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감이 한 단계 격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세 번째 변수는 2 차 감염의 확산이다. 중국을 다녀오지 않았는데도 2 차 감염을 통해 바이러스 감염

확진을 받았다는 소식이 늘어날 경우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이 커질 수 있다.

현재 금융시장의 가격 움직임은 이같은 기본 시나리오에 대한 반영으로 분석된다. 당장 바이러스 문제가 전격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없는 만큼 보수적인 시나리오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A 증권사의 한 채권운용부장은 "바이러스 관련 시나리오는 일단 급속히 호전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상황이 아주 심각하게 악화되느냐 아니면 이 페이스대로 악화되느냐 둘 중의 하나인 상황에서 현재 페이스 악화를 기본적으로 반영하고 추가 악화 가능성도 열어놓아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B 외은지점의 트레이딩헤드는 "채권, 주식, 외환, 파생시장 공히 그동안 '리스크 온'으로 포지셔닝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들 두려우니까 꺾는 것"이라며 "만약 '리스크 온' 포지션이 아주 많았다면 달러/원 환율도 1200 원까지 갔을 텐데 원화의 경우 상대적으로 베팅 포지션이 적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반도체가격이 50% 빠졌는데 올해 20% 정도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에 삼성전자(주가)가 사상 최고치까지 올랐다"며 "소위 위험자산 가격은 항상 심리가 먼저 가고 투기적인 수요가 붙었기 때문에 변동성도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지금 역으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통위 금리 인하, 너무 빠른 기대 VS 트리거 요인에 달려

바이러스 장세의 최종 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포함한 각국 중앙은행들의 기준금리 인하 여부와 맞물려 있다.

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연쇄적으로 인하할 정도의 사태가 되면 신종 바이러스는 '게임 체인저'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화정책 당국자들이 이번 사태의 경제적 파장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당장 전격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중국 경제의 둔화, 중국 경제의 둔화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지표로 확인될 때까지 시간도 필요하다.

C 외은지점 트레이딩헤드는 "이번 바이러스의 경우 치사율이 낮고 한국은 아직 사망자도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바이러스가 아직 한국 경제 전반에 공포심으로 작용하지는 않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이번 사태가 길어져 3 월까지 가면 경제지표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며 "다만 그런 것까지 고려하기에는 너무 빠른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5 년에는 세월호 학습효과도 있었기 때문에 메르스에 대한 공포감만으로 한은이 빨리 움직일 수 있었다"며 "이번에는 빠른 금리 인하에 대해 금통위원들이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아직 시간도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향후 바이러스 장세가 전개되며 군데군데 흩어져 있는 재료가 트리거된다면 금리 인하가 통화 당국자들의 테이블 위에 올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D 증권사 채권딜러는 "이번 바이러스 사태로 국내 성장률이 0.2%P 정도 낮아질 수 있다"며 "현재 금융통화위원회 내에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위원이 두 명인데 만약 어떤 상황이 트리거돼 주가가 더 조정을 받고,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된다면 전격적인 인하가 가능할 수도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초점)-바이러스 공포에 원화 강세 기대 균열..역외 vs 네고・당국 경계 힘겨루기

서울 (로이터) 박예나 기자 - 국제 금융시장이 신종 바이러스 공포에 휘청거리는 가운데 달러/원 환율은 상승 모멘텀을 재가동하고 있다.

미-중 1 단계 무역 합의와 국내외 경기 개선 기대에 1140 원대 진입을 저울질하기도 했던 달러/원 환율은 올해 상승분을 모두 토해낸 채 1180 원대로 껑충 올라와 7 주래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미-중 1 단계 무역 합의와 국내외 경기 개선 기대에 1150 원 하향 돌파를 저울질하기도 했던 달러/원 환

율은 올해 낙폭을 모두 만회한 데 이어 1180 원대로 껑충 올라와 7 주 만의 최고치로 올라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는 아직 어렵지만 해외 주요 기관들은 이를 새로운 리스크로 지목하기 시작했고, 금융시장 투자자들도 이를 가격에 반영하느라 바쁘다.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신종 바이러스 여파를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신용도에 새로운 리스크로 지목하면서 아시아 각국 경제 성장에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경고했다.

한편 무디스는 신종 바이러스로 세계 공급망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세계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위상이 커진 만큼 이번 사태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모간스탠리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2 월이나 3 월에 정점에 이를 것으로 가정할 경우 1 분기 세계 경제 성장률이 0.15-0.3%p 낮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 우려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등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악재들이 국내외 금융시장을 강타하면서 원화는 올해 강세 전망을 일단 뒤로 한 채 약세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 글로벌 교역 회복과 함께 한국의 수출 개선 기대에 균열이 생기면서 원화의 반작용이 더욱 돋보이는 상황이다.

▲ 대치 국면

달러/원 환율에 대한 그간의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고 있다. 환율은 이번 주 들어 200 일 이동평균선인 1178 원 선을 넘어 30 일 장중에는 120 일 이평선인 1183 원 선도 뚫었다.

하지만 이같은 환율 상승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역외 세력과 네고가 저항하는 대치 국면은 연일 지속되고 있다.

A 은행의 외환딜러는 "연초와 시장 여건이 달라지면서 한국 자산에 대한 역외들의 헤지 양상이 재개된 반면 네고가 이를 막아서는 국면이 최근 며칠간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시장 상황은 한국은행 자료에서도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작년 12 월 달러화 예금은 수출업체 래깅 전략으로 인해 약 48 억달러 급증한 반면 작년 4 분기 비거주자 NDF 순매도는 약 200 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있다. 특히 12 월 중에만 100 억달러 이상 순매도하면서 기존 역외 롱 포지션이 대거 언와인딩됐거나 숏 포지션 쪽으로 무게 중심이 기울어져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 다음 시나리오

시장 참가자들은 세계보건기구(WHO)의 비상사태 선포 여부와 중국 이외 지역에서의 사망자 발생 여부에 따라 추가로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B 은행 외환딜러는 "중국 우한에서 전세기로 일본으로 들어온 일본인 중에서 3 명이 감염이 확인되는 등 신종 바이러스 확산 우려에 달러 매수세가 더 강해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전개 상황에 따라 달러/원 환율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최근 네고 저항뿐만 아니라 당국 경계도 함께 강해지면서 환율의 상승 속도는 조절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외환 당국은 신종 바이러스에 따른 시장 불안 확대 시 적기에 시장안정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위의 딜러는 "최근 환율 상단이 두터운 데 대해 당국 경계도 함께 커지고 있고 중국 정부도 춘절 연휴 이후 위안화 변동성을 관리할 수 있는 만큼 환율이 마냥 위쪽으로 상승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 PHOTO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관련 로이터 사진 모음(CLICK HERE)